



새내기 때 자주 마시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마셔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틀 연속 진짜 뽕세게 술을 마셨다

첫날은 숙취가 거의 없었는데
둘째 날 거의 인사불성이 됐다
보통 집 가는 길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확 취하는데
그때 뭘 전화랑 카톡을 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고
자고 일어나서 보니 집에
튀김우동 컵라면 부스러기가 있는데
먹은 기억이 없었다;;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지인들은
거짓말, 호들갑이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안 좋아한다

미식으로서의 술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마리아주?
알코올 안 들어간 다른 음료로도
음식과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카스텔라와 우유처럼 말이지

뻘한 얘기지만

술 마시면서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고
취기를 빌려 진술한 이야기, 평소 못 나눴던 이야기
가볍게 하려고 마시는 거지

근데 문제는 내가 예전부터 술을 잘 안 꺾는다
남들한테는 못 먹겠으면 꺾으라고 잘만 말하면서 ㅋㅋㅋ
은근 술부심이 있나 보다

숙취로 개고생을 하면서
시즌 몇 호찌인지는 모르겠으나
값비싼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처럼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번 달까지는 금주하고
내가 생각하는 주량 기준치가 있으니
그걸 넘기면 마시지 말아야겠다

술을 처음 배웠을 때는
연장자와 마시는 자리가 많아서
항상 정신 챙기려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 들락날락하며 노력을 했는데
요새는 편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지
긴장도 안 하고 정신줄을 쉽게 놓아버리는 것 같다
블랙아웃도 원래 겪어본 적 없다가 요새 좀 잦다
차라리 내가 마시고 싶고
마시면서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 날이면 괜찮은데
둘 다 아닌 상태에서 마시고 숙취로 고생하니까
씩 기분이 좋지 않다
그냥 내가 꺾었으면 다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를
괜히 같이 마신 사람 탓하는 거 같아서
글 쓰면서도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솔직하게 든 생각이니까 남겨둔다
내 블로그는 일기장이다

진지함을 조금 더 첨가해 보자면
지금의 나는 정신 멀쩡할 때도
나 자신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뒤늦게 건강 챙겨보겠다고
운동하면서 영양제 알아보고 챙겨 먹고 있는데
술 마시면서
안 그래도 미미하게 체감되던 변화가 거의 안 느껴지게 되고
이것들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진다

혹자는 말한다
'취해서 하는 말이 원래 그 사람 본성이다'
'평소 본심에서 나오는 말이다'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하겠다
만취 상태에서 떠올리고 내뱉는 말은
정신 상태가 잡음이 잔뜩 끼어있는, 꿈결같은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이라
제정신 박혔을 때라면 나오기 어려운 말들이 나온다
본심이면 본심, 거짓말이면 거짓말, 허풍이면 허풍
그게 내 평소 생각처럼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도 있다는 게 싫다

스스로를 심신미약 상태에 놓고

나와 상대방에게 책임감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싫다

애초에 인사불성 상태가 될 정도로 자주 취하면 안 된다

취하게 하면 더더욱 안 되고

다음 날 후배랑 오랜만에 만나서 책 얘기 하려고 번개 약속 잡은 것도

숙취가 너무 심해서 못 갔다

할 얘기가 무척 많았는데

미안해 다음에 만나면 내가 밥 살게

아니 그리고 내 주변에는

왜 이리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애초에 못 마시는 사람과는 자주 안 마시다 보니까

자연스레 잘 마시는 사람만 주변에 남은 것 같다

게임할 시간도 없는데

술 마실 시간은 더더욱 없다

요새 술값도 비싼데

차라리 그 돈과 시간 아껴서 가차 한 번 더 돌릴란다